



함께, 태그

Contents

2018 부산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우수운영사례집



07
장애인의 두발로 직접 걸으며
체감하는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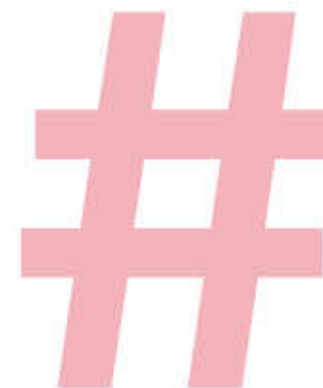
19
이용자의 욕구 표출 및
자기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회의

27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텃밭 나눔 사업

39
“권리와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다.”

49
“내가 만든 요리, 꿀맛”

57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표현훈련 프로그램
“자립으로 가는 길”



함께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그 **고민**의 흔적을 공유하다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립전환지원센터입니다.

2018년 6월 경 부산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우수운영사례 공모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지원센터에서는
각 주간보호시설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

각 주간보호시설에서 느끼고 있는 고민들이
한 시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고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를 하나로 모아
접수된 작품 중 수상작을 엮어 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2018년 부산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우수운영사례 공모전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선생님, 심사위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고민의 흔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 간디 -

01

장애인의 두발로 직접 걸으며 체감하는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행복나눔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워킹트레이닝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심 향상

2016년 1월부터 현재 까지

고민의 흔적

“부모와 가정을 떠난 자립생활의 기쁨에 대해 고민하다.”

같은 장애라도 그 특성이 다 다른데 비해 개인 시설의 현실 여건은 이들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수준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애쓰던 중 가장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이 이용자들의 멀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성인이라는 연령 특성상 멀지 않은 미래에 부모와의 사별,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부모가 더 이상 이용자들의 부양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 시 이용자들은 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갑자기 낯선 환경에 이용자들이 적응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립생활의 기쁨, 건강유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집중하다.”

곧 다가올 너무도 절박하고 중요한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 유지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체력증진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자립의 능력,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통의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이용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의 종착지, 워킹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탄생하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주를 이루는 열악한 환경의 개인 시설로는 위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센터 입장으로써는 위에 기술한 내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최대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러한 고심 끝에 시작하게 된 것이 워킹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예외 없는 시작, 차근차근 목표들 향해 달려가는 우리”

워킹트레이닝은 본 센터의 이용자들의 구성이 성인 지적·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상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장애 정도가 어떠하든 충분히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용자 대다수의 심각한 비만과 허약체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 온 헬스, 균형감각 익히기(자전거타기), 요가, 생활체육, 태권도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워킹트레이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두 발로 직접 걸으며



체감하는 “행복이의 두발이 여행(워킹트레이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워킹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 전국 5도를 직접 걸어보는 5회의 1박2일 캠프, 4박 5일간의 미니국토대장정, 그리고 24박 25일간의 국토대장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된 24박 25일간 서울청와대에서 부산사하구청까지 517.2km국토대장정은 당사자인 지적·발달장애인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음직하고, 실현 해 보고자 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걸으며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일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앞장서서 해 보고자 발도 내딛지도 못했기에 꿈꿔 볼 수 없었던,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발로 밟아 우리나라를 온 몸으로 느껴보게 하고 싶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렇게 진행된 국토대장정은 워킹트레이닝의 목적이나 끝이 아닙니다. 워킹트레이닝의 한 일환으로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국토대장정을 더 크게 보는 이들이 많으나 본 센터는 워킹트레이닝의 지속적인 진행 속에서 더 큰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센터 이용자들은 지금도 매주 워킹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자립의 가능성을, 보다 나은 건강으로 더 나은 삶을, 가족들에게 부양부담 감소, 힘들고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힘들어 하는 지역사회에는 긍정에너지 전파와 장애인식개선을 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단단히 이루어 가기 위해 또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함께 가다

○ 워킹트레이닝을 준비하다

ft. 헬스

전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체육센터 내의 헬스트레이너와 함께 직접 이용자들의 헬스를 지도하고 돕습니다.



활동내용 헬스장을 이용한 체력증진 헬스 기구를 이용하여 이용자 맞춤형 트레이닝 실시
실시횟수 주 2회 (2014년 8월 ~ 2015년 12월)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용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자부담

ft. 요가

자발적인 활동이 거의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스트레칭과 “흥”이 많은 특성을 살려 음악을 통한 요가활동을 실시합니다.



활동내용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요가활동
실시횟수 주 1회 (2014년 3월 ~ 현재)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용 자부담

ft. 자전거 타기

처음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탔으나 4년째 인 올해는 신체 특성상 4명(뇌병변 복합장애 이용자, 선천적으로 다리가 휘어진 이용자 등)만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이용자는 자전거에 앉기까지 3년이 걸린 이용자도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같이 낙동강자전거 페스티벌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가 정말 놀라운(착석, 집중, 지구력, 자세교정, 균형 감각 증진, 체력 증진, 타인과의 소통 능력 증진 등) 많은 변화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균형감각익히기(균형감각, 지구력, 인내력, 순발력, 자세교정 효과, 매년 낙동강 자전거 페스티벌 참가)
실시횟수 주 1회 (매회 약 2시간, 2015년 9월 ~ 현재)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용 자전거 구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기타비용(자부담)

ft.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이용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모두가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킹트레이닝은 그 모든 목적과 효과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배제 없이 지적, 뇌병변, 복합 장애 이용자도, 언어소통이 안되는 1급 발달 장애 이용자 모두,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멈출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내용 부산 시내를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을 주 1회 약 20km 이상의 거리를 직접 두 발로 체험하며 걷기
실시횟수 주 1회 이상 (2016년 1월 ~ 현재)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용 자부담

○ 한 걸음 더, 전진하다

ft. 청년마루 국토대장정

이용자들에게 새 도전(국토대장정)을 위한 첫 경험으로 일반대학생 국토대장정 팀에 합류하여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활동내용** 서문교회 주최 청년마루 국토대장정팀에 1박 2일간 합류하여 울산에서 진해수목장까지 워킹
- 실시횟수** 1회 (1박 2일, 2016년 7월 20~21일)
- 대상인원** 이용자 14명
- 자원활동**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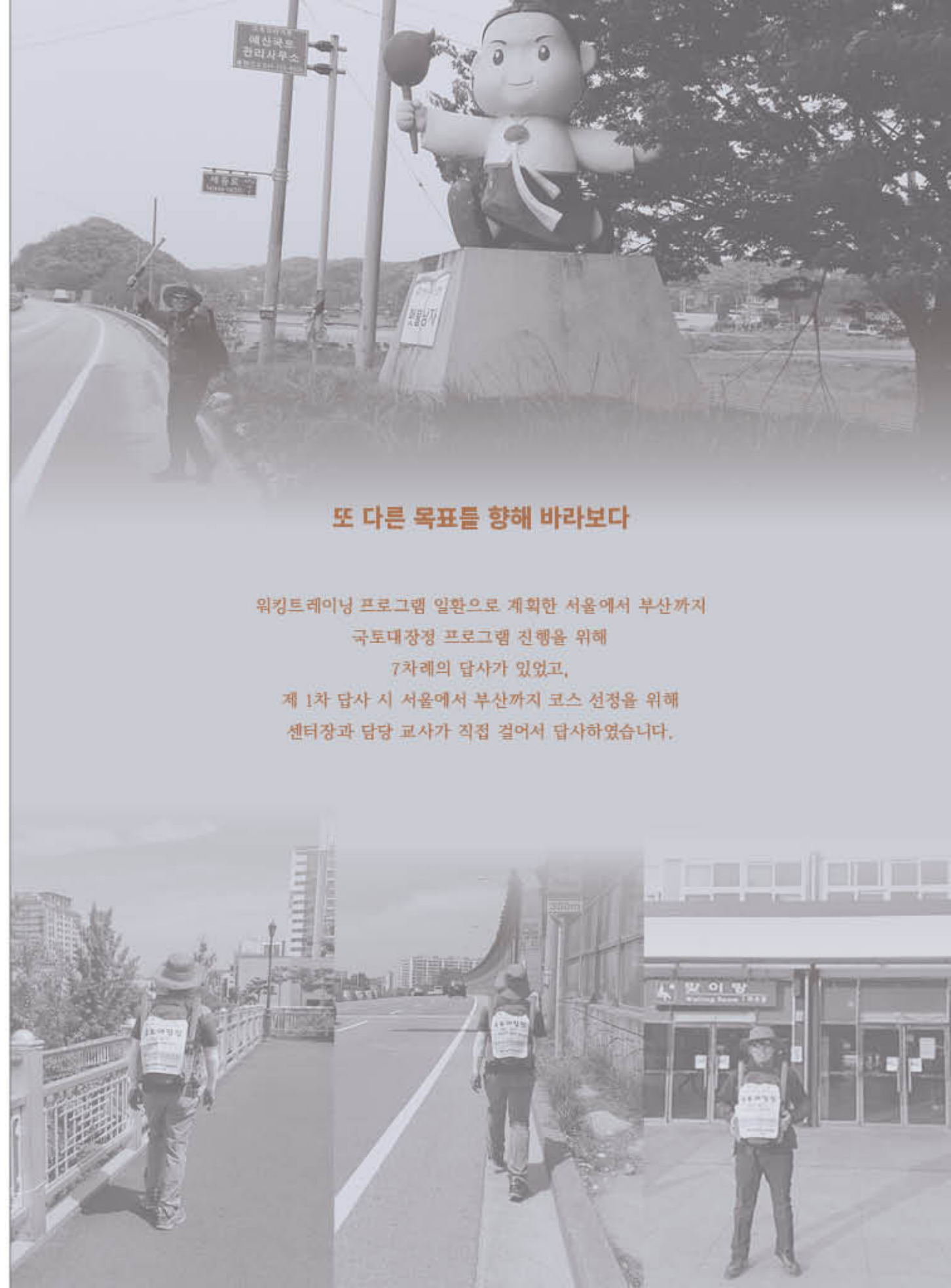
ft. 제주도 3박 4일 워킹트레이닝 캠프



- 활동내용** 두 발로 직접 체험하는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의 일환으로 3박 4일간 이용자, 부모님, 자원봉사자가 함께 제주워킹트레이닝 실시
- 실시횟수** 1회 (3박 4일, 2017년 6월 12 ~ 15일)
-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 자원활동** 자부담

또 다른 목표들 향해 바라보다

워킹트레이닝 프로그램 일환으로 계획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대장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7차례의 답사가 있었고,
제 1차 답사 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코스 선정을 위해
센터장과 담당 교사가 직접 걸어서 답사하였습니다.



○ 코 앞으로 다가온 도전, 설레이는 도전

ft. 장애인의 두 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국토대장정 준비여행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1박 2일 전국 5도 문화탐방 캠프)

워킹트레이닝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도를 선택하여 그곳의 문화탐방을 함께 실시하여 이용자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전했습니다.



활동내용 장애인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발로 체험하는 국토대장정 준비여행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1박 2일 캠프를 5회(경북권, 전라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나누어 실시 (feat. 문화탐방도 함께 진행)

실시횟수 5회 (1박 2일, 2016년 7월 ~ 11월)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동**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조금만 더

ft. 체력증진을 위한 태권도

워킹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태권도의 동작을 익힐 뿐만 아니라 오래 걷기에 도움을 주는 근육 운동, 체력 강화 운동에 주 역점을 두어 과학적으로 진행됩니다.



활동내용 국토대장정 준비를 위해 체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실시횟수 주 2회 (2017년 5월 ~ 11월)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동 동아대 대학원 스포츠학과 석박사팀 재능기부

○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시작하다

ft. 미니 국토대장정

장애인의 두 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행복이의 두박이 여행 국토대장정, 그 가능성을 실현했습니다.



활동내용 국토대장정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사하구청에서 울산 간절곶 코스의 4박 5일 미니국토대장정 실시

실시횟수 1회 (4박 5일, 2017년 10월 23일 ~ 27일)

대상인원 이용자 14명 **자원활동**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자부담

ft. 국토대장정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517.2km 국토대장정 완주는 워킹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지적·발달장애인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지하고, 실현해 보고자 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접 걸으며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일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앞장서서 해 보고자 발도 내딛지도 못했기에 꿈꿔 볼 수 없었던,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활동내용 서울 청와대 사랑채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하구청까지 24박 25일간 517.2km를 본 센터 이용 장애인들이 직접 두 발로 걸으며 체험하는 국토대장정 실시

실시횟수 1회 (24박 25일, 2018년 4월 9일 ~ 5월 3일)

대상인원 이용자 15명

자원활동 지자체기업 및 병원 후원, 관내 주민센터, 구청후원, 천사후원, 자부담

본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발로 밟아 우리나라를 온 몸으로 느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화하다

김 ○
(지적장애 1급, 만 25세)

비만, 도전적 행동 감소,
스트레스 완화

김 ○○
(지적장애 1급, 29세)

대소변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다
자세가 틀어지고 굽어진 관절이
펴지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걸음걸이가 고쳐져 이제 신발을
끌지 않고 가벼운 걸음을 걷게 되다.

박 ○○
(발달장애 1급, 26세)

마르고 외소한 체형으로 먹을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다
체중 3kg 증가

서 ○○
(지적장애 1급, 뇌병변
1급의 복합성 장애 30세)

넘어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듦, 오래 걷기, 걷기 속도,
자세 등의 월등한 향상

원 ○○
(지적장애 3급, 34세)

전혀 뛰지 못하던 이용자가
이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뛰어나요.
끝까지 완주해내는 건강한
체력과 지구력이 생겼어요.

이 ○○
(발달장애 1급, 25세)

넘어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 무릎의 상처가 생기지
않게 되었어요.
길을 걸을 때도 교사의 지도를
따라 말을 듣고 조심하는 횟수가
높아졌어요.

하 ○○
(지적장애 1급, 27세)

하루 5분 이상 걸어본 적 없었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 앉았는데,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보여줬어요.
미니국토대장정 때도, 실제 국토대장정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 성공

함께 극복하다

위험하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라도 나면
그 뒷감당과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우리 아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지만 성인기 발
달장애인 대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작은 힘들 조차도 거부
를 하시고 자녀의 자립에 대한 의지가 낮으셨습니다.

워킹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인식과 대립하는 과
정에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사회성 발달, 인내심 향상 등을 위해 워킹트레
이닝을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계속 시도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부모님들의 인식 또한 점차
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눈에 띄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부
모님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님들
이 지지기반을 만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전달해주어 부모님
의 인식개선 및 관계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부모님의 인식 변화로 인해 부모님이 자원봉사자
로 활동해주셔서 자원봉사자 부족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식대, 간식대, 주유대, 기타 등등 매주 평균 25명의 인원이 움직이는데
약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국토대장정에 대한 비용은
소규모 개인 시설에서 꿈꾸기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를 위해 진정성과 투명성, 성실성을 토대로 후원금 일체를 첫째도 이
용자요, 둘째도 이용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후원자분들께서 아름아름 지인을 연결하여 “국토대
장정을 위한 1004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근 관내 주민센터, 구청 담당자를 비롯한 구청장님의지지, 지역사회
기업체에서도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본 사업이 별탈없이 진
행될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 # 건강검진 무료 후원 장림 한서병원 이사장님과 사모님
- # 국토대장정의 안전에 도움을 주신 경찰관님들
- # 실제 군복을 입고 병영 체험의 기회까지
- # 국토대장정 중 숙박했던 세종시에 위치한 그랜드모텔 사장님의 깜짝 삼겹살파티
- # 국토대장정 중 만난 작은 카페 사장님의 따뜻한 정
- # 후원자 선생님의 연잎밥과 간식으로 이루어진 든든한 한 끼 식사
- # 모든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준 모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2

이용자의 욕구 표출 및 자기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회의

솔라피데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습득

이용자의 욕구 및 자기 표현력 향상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고민의 흔적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면서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자들은 식사, 프로그램, 교구, 환경 등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자극들로 인해 욕구가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매주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연 1회 실시되는 욕구조사로는 이용자들의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에 대한 자기표현의 기회가 증진될까?

센터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주체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용자들은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이지만, 프로그램과 센터 생활에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때문에 이용자의 직접적인 의견과 평가보다는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 일지와 관찰일지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이 아닌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타인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수 있을까?

이용자들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 갈등으로 번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우리만의 자치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다

자치회의는 솔라피데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5명이 주 1회 참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할들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주별 주제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방향과 장소, 식단, 간식 등 센터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자 치 회 의 록 | | | | |
|------------------------------------|--|--|------------|-----|
| 일 시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 | |
| 진행자 | 문성진 | 서기 | 정선영 | |
| 결석자 | 장준영 | 장소 | 솔라피데주간보호센터 | |
|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 | | | | |
| 일상생활 | 설거지 당번 | 이유경 정영재 | 뒷밭 물 당번 | X |
| 점심식사 | 밥 옮기기 | 임주희 | 식판 들고 오기 | 김지윤 |
| | 반찬 옮기기 | | 수저 옮기기 | |
| 프로그램 평가 | 캠프 (경주) | 장호옥 수영장 하는 것이 재밌었다 임주희 에 일 레 배명숙도 장군 재밌었다 김지윤 도록 북 이유경도 유너 게 임 정영재 토로 북 정선영 물놀이 좋았다 조재현 미끄러들 제일 좋았다 김지윤 수영장 비치볼 공놀이 좋았다 임주희 카페 핫초고 코코 아 맛있었다 | | |
| 하고 싶은 프로그램 | 파도 놀이 너무 무섭다 물 다리 양펜치 놀이 동산 수조관 펠러비즈 비즈공 놀이 황제 만들기 액자 만들기 손목시계 만들기 레일 만들기 오자이크 만들기 | | | |
| 먹고 싶은 반찬 | 미나돈까스 공나 물우침 소고기 미역국 김치전 계란말이 양파튀김 봉가리치킨 카레라이스 김치찌개 부대찌개 치킨너겟 야채수프 | | | |
| 하고 싶은 말 | 일기장 영어공부 색칠공부 가을 소풍 | | | |

솔라피데주간보호센터

인사 및 기본사항 쓰기

- 반장이 자치회의의 시작을 알립니다.
- 반장은 서기 지원자 중, 서기를 선발하고 서기는 당일 자치회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할 분담

- 이용자들이 센터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역할들 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에 손을 들어서 역할을 분담합니다.
- 때에 따라 참여가 적은 이용자들에게 역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 지난주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알려주고, 이용자들은 참여 소감, 느낌 등의 의견을 나눕니다.

주별 논의 주제

- 위의 사항들은 매주 1회 논의가 되는 내용이며 주별로 한 가지씩 다른 주제들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 첫째 주: 선호하는 간식, 반장선거
- 둘째 주: 한 가지 주제로 생각 나누기(토의하기)
- 셋째 주: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호하는 반찬
- 넷째 주: 청소구역 변경
- 주로 위 순서로 진행이 되며,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기타사항 : 하고 싶은 말

- '기타사항'이라고 표기하였을 때 이용자들이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 관찰되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 위의 사항들 외에 센터를 이용하며 불편한 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화하다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역할 분리하다”

초기 자치회의의 반장은 자치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장을 하고 싶은 이용자들은 많았으나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쓰기 능력을 갖춘 이용자만이 반장 후보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지원이라는 판단에 자치회의의 역할을 분리하였습니다.

자치회의의 일부분을 시각화하여 언어 활용이 어려운 이용자들 또한 자치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회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서기' 역할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서기보다 반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껴 반장이라는 직책을 강화물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욕구와 자기표현을
위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을
이뤄나간다”



자치회의 초기에는 타인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경험에 대한 변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욕구와 생각,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린 후, 자치회의록에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수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에피소드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회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욕구를 알고 자신의 상태와 기분을 파악한 뒤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본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재촉하게 되면 본인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욕구와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있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기다려다보면 그 과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회의와 의사소통에
관한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다”

본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소통의 방법과 갈등 해소의 방법 등을 알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자치회의는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은 자치회의에서 지켜야하는 회의 예절과 의견제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익힐 수 있었습니다.

03

중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텃밭 나눔 사업

“녹색 치유와 소통의 프로젝트, 싹트네 텃밭”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민의 흔적



중증의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지역사회 역시 장애인을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또한 함께 소통하거나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막연한 편견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측은지심으로 발달장애인을 과도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오히려 사회와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과 발달장애인의 만남의 횟수를 높여 그들도 보통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가다



“썩트네 텃밭
개장했습니다.”

썩트네 텃밭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텃밭활동을 시작하기 전 땅을 일구기 위해 준
비중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수확물이 자
라겠죠?

고신대 작업치료학과, 광양함 대원, SK영남물류
센터, CJ텔레닉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작물
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과 퇴비를 골고루 뿌
려줍니다.



“우리의 땅, 꿈,
텃밭 활동 이어가다”

2017년부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썩트네 텃밭
활동~

매주 2번씩 텃밭으로 이동하여 모종을 심고 씨
를 뿌립니다.
단호박 모종을 심고, 심어놓은 감자에 EM활성
액을 뿌려 감자가 크고 맛있게 자랄수 있도록
주문을 외웁니다.



“예쁘게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어느덧 상추를 수확할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고신대 작업치료학과 봉사동아리 ‘하나린’ 친구들과 주간보호 이용자들이 1:1로 짝을 지어 상추를 뽑아봅니다.

오늘 뽑은 상추는 내일 드리네 day 때 동삼1동 지역사회에 나눠 주려고 합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고추와 가지에 지지대를 설치할 시기입니다.

고추와 가지가 지지대를 타고 위로 쪽쪽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린’ 친구들과 짝을 지어 지지대를 설치하고 묶어줍니다. 하나린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장난도 치고 즐겁게 활동합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되어봅니다.”

썩트네 텃밭의 수확물을 활용하여 매달 한 번씩 요리활동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은 상추를 이용한 상추전과 상추닭가슴살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상추와 닭 가슴살을 찢고, 파프리카를 썰은 후 텃밭에서 함께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섞어 샐러드를 완성합니다. 옆에서는 상추전을 만들기 위해 팬에 상추와 반죽을 올리고 구워 완성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요리는 복지관의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 그릇에 예쁘게 담습니다. 선생님들께 우리가 만든 요리 제목을 열심히 설명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며 “우와~맛있겠다~”, “잘 만들었네요”라고 칭찬하며,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줍니다.



“사람을 먹고 자란
유기농 상추가 왔어요”

썩트네 텃밭의 드리네day 사업의 일환으로 주간보호 이용자들이 텃밭에서 직접 수확물을 판매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여 주저하였지만 한봉지, 두봉지씩 판매되면서 본인이 먼저 팔기 위해 봉지를 건네거나 돈을 먼저 받는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봉지에 990원. 이용자들이 직접 돈을 받고 거스름돈 10원씩 돌려주며 자연스럽게 화폐인지교육과 물건 구매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시작한지 10분만에 준비한 물량을 모두 완판 하였습니다.



“땅에서 수확한 마음을 나눠요,
(feat. 드리네 day)”

드리네 day는 수확된 작물과 비누, 김장김치를 지역사회 이웃과 나누며 이용자들의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지적·자폐성장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복지관 직원들과 주간보호 이용자들이 짝을 지어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확물 받으세요,
우리가 키운거예요.
(feat. 수확물 드리네 day)

드리네day 활동으로 동삼1동 가게들에 맘으로 수확한 상추, 가지, 고추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없고, 수줍어하던 이용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주 마주하는 가게에서는 먼저 인사하고 오늘 가져온 수확물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동삼1동의 가게 사장님들도 경계하거나 낯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매월 고박고박 방문하였더니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장님, 이용자들과 하이파이브하며 활동을 격려해주시는 사장님, 더운 날씨에 힘들겠냐며 음료로 격려해주시는 사장님, 오늘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며 이용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용자와 가게 사장님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소비누 받으세요,
얼굴이 예뻐져요.
(feat. 비누 드리네 day)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활용하여 채소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가지, 상추, 당근 시금치 등등 여러 가지 야채를 깨끗하게 씻어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료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담고 비누를 예쁘게 포장하여 동삼1동의 가게에 나누어드립니다.

이용자들은 비누를 소개하고 사장님들은 수확물로 만든 비누라는 얘기에 깜짝 놀라하시며 신기해하십니다.

이제는 채소비누를 가져왔다고 하면 어떤 채소로 만들었는지 먼저 관심을 보이시며 궁금해 하십니다.

포장된 비누를 보며 너무 예쁘다하시고,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활동을 소개하여 중증 장애인의 인식개선활동에 함께 동참해주십니다.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사용감이 너~무 촉촉하고 좋으시라며, 아낌없이 칭찬해주십니다.



사랑으로 버무린
깍두기 day
(feat. 김장나눔)

2017년 12월, 기온이 점점 내려가며 겨울을 나기위해 집집마다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김장용 무를 심고 수확하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깍두기 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를 뽑아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와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통에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0개의 김치통이 모두 채워지며 깍두기 담기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복지관 선생님들과 이용자들이 복지관 조끼를 입고 깍두기 깍두기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동삼1동의 가게들 중 대부분이 처음 방문하는 가게라 낯설어하고, 경계하였지만 우리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니 대부분 흔쾌히 받아주시며 좋은 일을 하신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 이용자들을 지도해주신 태권도 관장님들과 자원봉사단체, 후원처 등에 깍두기를 전달하며 이용자들이 직접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맛있는 깍두기를 담아 지역사회의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드리네 day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텃밭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책임감과 적극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텃밭에 도착 후 필요물품을 준비하고, 착용하면서 오늘 활동이 무엇인지 관심을 나타냅니다.

모종을 심으며 상추는 어떻게 생겼는지, 오이의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면 이전에는 단답형이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뽕뽕뽕해요’, ‘둥그래요’라고 구두로 표현하거나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적극적으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또한 물뿌리개를 챙겨 와서 심어진 작물에 물을 주겠다고 표현하는 모습, 다른 이용자의 활동이 부족한 것 같으면 교사의 지시 없이도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모습, 텃밭 관련 물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소극적으로 활동했던 과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중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권유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려고 하며,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것과 텃밭에서 활동하는 것 중 무슨 활동이 재밌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거’라고 표현하며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드리네 day를 통해 지역사회 속 스머들다

드리네day를 하며, 복지관 인근에 있는 약국, 치과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활동 중 이용자들에게 방금 방문했던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치아를 가리키거나 치과, 약국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치과나 약국은 언제 오는 곳인지 물어보면, 이가 아프거나 약이 필요할 때라고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외에도 미용실, 마트 등 여러 가게를 방문하며 가게마다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이자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내 모든 이용자가 지역사회 가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다보면,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머드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우리,
더더지만은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드리네 day 활동시 이용자들이 직접 인사하기, 수확물 소개하기 등을 구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성향, 기능의 제한, 낮선 환경으로 인한 긴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활동 초반에는 이용자가 수확물을 전달만 하고 직접 구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함께 동행하는 담당교사나 직원이 사업 취지에 대해 전달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3회를 진행하며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사하기, 수확물 소개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한 결과 표현력이 서둘러는 한 스스로 수확물에 대한 안내와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까지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훈련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사자 참여형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에피소드

“이분이
사장남이에요.”

드리네 day 활동은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와 담당교사, 복지관 직원 2~3인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A이용자와 B직원이 짝을 지어 드리네 day를 진행하던 중 B 직원은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반면, A이용자는 가게 앞에 서 계신 아저씨를 보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A 이용자가 가게에 들어가지 않자 B 직원이

“A씨, 왜 안 들어와요?”

물었습니다.

A이용자가 손짓으로 문 앞에 있는 분을 가리키며

“이분이 사장남이에요.”

라고 하며 오히려 B 직원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네 day를 참여하다보니 지역사회 의 이웃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뒤통가나”

주간보호센터의 C 이용자는 ‘뒤통가나’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뒤통가에 가고 싶어서 묻는지 다시 질문하면 항상 가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이후 뒤통가에 도착하면 다른 이용자들은 모두 열심히 활동하지만 C 이용자는 모자와 장갑을 끼고서는 덩그러니 서있기만 합니다.

C 이용자에게 어떤 일을 권유하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며, 구두로 표현만 ‘할 거예요’를 반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싹트네 뒤통가 활동에 이용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담당 교사와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C 이용자는 ‘뒤통가’, ‘안가나’ 라고 표현하며, ‘날씨가 더워 힘들텐데.’라고 말려도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함께 뒤통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도 스스로 활동하기보다 타인이 활동하는 내용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C 이용자는 실제 뒤통가 활동보다 뒤통가에 나가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실제 활동하지는 않아도
우리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
뒤통가에 가고 싶음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04

“권리와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다.”

이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한 기회 및 수단 제공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고민의 흔적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제1조(목적)에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그리고 제23조에서 정보접근·의사소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에 대해서 점자, 음성, 수화 등을 통해 보호하는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10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알 권리’, ‘정보접근권’, ‘의사소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발달장애인들의 응답이 약 25%로 ‘동반자가 없어서’라는 답변 다음으로 높게 나왔고,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지적장애 31.3%, 자폐성장애 56.8%로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들이 정보를 받고, 판단하여 결정하고, 표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종사자들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나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 일들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의 여러 권리들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야
한발 앞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가다

○ 정보접근권을 고려하다

ft. 월
교육계획안

| 이동통신망사업자정보시스템 4월 교육개요화단 | | | | | 4월4일~4월10일 교육기간 4월 11~13일 Day 1~3 http://www.kcc.or.kr/ks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월 | 2월 | 3월 | | | |

ft. 시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G폰도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세상에
시계도 디지털시계로 교체

#응답하라 1998
#덕선이도 #지금 #스마트폰 쓴다

ft. 하루일과표
및 사물함



쉬운 단어, 이름표 + 얼굴사진

난 1년차 사회복지사다.
사실 난 보수교육시간에 일정표를 제일 많이 본다.
고로 하루일과표는 우리에게도 필수다.

난 3년차 사회복지사다.
사실 난 책상에 내 물건이 없으면
내 책상 찾는 것도 아직은 버겁다.
고로 사물함의 얼굴사진과 이름표는 우리에게도 필수다.

#오늘은 뭐할까 #언제 마칠까 #내 사물함이 어디더라...

ft. 교실
일상용품



쉬운단어, 이름표 + 실제 사진

사실 난 교실의 일상용품 정리함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아직도 헛갈린다.
고로 교실 일상용품 정리함의 이름표는
우리에게도 필수다.

#가위 #색연필 #풀
#비즈공예용품 #바리스타용품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다

ft. 선호 프로그램 선택



바리스타

베이킹

비즈공예

#우리는 전공반



사진

캘리그래피

다도

#우리는 동아리 활동반

선택 + 집중

개인취향의 존중 및 선택,
집중교육 실시

나는 나
너는 너
자기결정권

ft. 자기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활동



우리는 소그룹 활동 중



우리는 경제활동 중

선택 + 책임

개인취향의 존중 및 선택을
통한 책임감 교육

내가 선택한 길
돈 # 결제

ft. 간식제공



동일한 간식 제공 간식 골라먹는 재미

개인별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본인이 먹고 싶은 간식을 직접 선택

월화수목금
맨날 바뀌어 # 선착순
오늘 뭐 먹지?
득템

ft. 프로그램 내 자기선택기회 제공(요리교육-주재료: 라면)



동일한 라면 중 먹고 싶은 라면 고르기

요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실제 마트나 편의점에 갔을 때
다양한 제품 속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라면제품을 선택하도록
자기결정 교육 실시

결정장애 # 난 신라면 # 선택

에피소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ft. I-CARD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I-CARD를 작성하여
상대방과의 소통을 지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ft. 만족도조사



before

after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before

after

연간센터이용 만족도조사

실제 사진 + 쉬운 단어

프로그램 실시 후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실제사진을 바탕으로 한
무기명 만족도조사를 통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원

무기명 # 불만제로

기존에는 간식제공을 15명의 이용자에게 모두 동일한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비나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간식제공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15명의 이용자와 15개의 간식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간식 중에서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간식을 손 씻기 등 위생관리 후 선착순으로 간식을 골라갑니다.

평소 이○○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수동적인 편입니다.

다른 이용자들은 일찍 오면 더 맛있는 간식을 먼저 골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간식이 준비되기도 전에 미리 간식테이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이용자는 위생관리를 하고 본인의 책상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간식 배식을 마치고 1개의 간식이 남았습니다.

이○○ 이용자에게 저희는

“○○씨 간식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용자는 미소를 지으며 간식테이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간식테이블에 놓인 간식을 보더니 저희에게 눈을 흘기며 작게 혼잣말을 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반장인 최△△ 이용자가 간식을 먹다가

“그런데 ○○ 언니는 왜 간식을 안 먹어요?”

라고 저희에게 말한 뒤 간식을 이○○ 이용자에게 가져다줍니다.

이○○ 이용자는 간식이 담긴 그릇을 한참 보더니 멀리 밀어버리고 고개를 돌린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이용자에게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이용자들이 안 볼 사이 다른 다과를 제공했던 소소한 일상이 떠오르네요.

05

“내가 만든 요리, 꿀맛”

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소근육과 눈의 협응 작업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고민의 흔적

사회 현실을 논하다

대부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정책이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을 가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가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가족들은 극심한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복귀한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립생활 능력이 떨어져 사회통합이 더욱 어렵게 되며 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보호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될 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요리에서 길을 찾다

우선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왔고, 첫 발판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소 요리활동을 좋아하는 이용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본 센터 사회복지사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어 요리활동 진행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쉽게 조리하는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쉽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립을 위한 활동, 먹는 즐거움을 활용한 요리를 접목하여 청결, 식습관, 영양, 자립 향상을 목표로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다

요리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 언어를 통해 요리활동을 안내하고 행동적으로 돕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요리활동의 경우 안전을 위해 조리도구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였으며, 요리사진카드를 통해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료 준비가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재료 준비에 함께 참여합니다.

청결을 위해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요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별 맞춤을 위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18명 이용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2~3명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음식 섭취 후에는 다 먹은 접시는 싱크대 개수대에 스스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사후에 월별 요리 인지 투표와 사후 활동지를 통해 요리 그림을 그려보고 맛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들의 자립을 위한 요리활동을 시작합니다.

| 회기 월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
| 1월 | 굴치만들기 | 핫도그 만들기 | 컵케이크 만들기 | - |
| 2월 | 크림스프만들기 | 떡국만들기 | 막대초코바만들기 | - |
| 3월 | 계란후라이 | 핫케이크 | 라면끓이기 | 떡볶이만들기 |
| 4월 | 견과류강정 | 김치참치주먹밥 | 감자샌드위치 | 카나페 |
| 5월 | 무쌈말이 | 만두만들기 | 또띠아피자 | 토스트 |
| 6월 | 자장면 | 마카로니샐러드 | 야채전 | 계란삶기 |
| 7월 | 소떡소떡 | 펄스크림 | 우유빙수 | 통감자구이 |

월별 진행된 꿀맛 요리명

요리교육을 진행한다

요리를 만들기 위해 요리에 필요한 재료사진을 펼쳐 놓으면 이용자들이 재료 사진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찾아 재료구입 종이에 사진을 붙여 봅니다.

구입해야 하는 재료는 글자를 보고 따라 적어보는 활동도 함께 해봅니다. 글자를 모르는 이용자는 외각선 모양글자를 따라 적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자 적기가 어려운 이용자는 사진의 재료를 따라 말해 보기 활동을 합니다.



장보는 것도 스스로



자신이 구매해야 하는 사진재료 용지를 가지고 지역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요리재료를 구입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슈퍼마켓 주인에게 재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재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과 비슷한 재료가 있는지 1차 확인하고 계산대에서 재료를 정확하게 구매하였는지 2차 확인을 합니다. 재료를 정확하게 구매한 이용자는 장바구니에 재료를 담습니다.

차근차근 재료 준비

구입한 재료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과 상온에 보관해도 되는지를 구분해봅니다.

재료 중 다듬어야 하는 재료가 있으면 2~3명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개수대에서 씻어서 준비하는 재료는 수행과정을 보여주고 1명씩 이름을 불러 모델링 과정을 거친 뒤 수행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본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가 잘 준비되었는지 손을 씻었는지 확인합니다. 요리재료가 준비되면 담당자가 요리 전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가장 작업능력이 좋은 이용자부터 이름을 불러 소그룹으로 실시하며 2~3명이 1팀이 되어 진행됩니다.

요리 시작 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담당자가 옆에서 요리과정을 언어적 행동적 도움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이 만든 요리는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만든 요리, 맛은 어떨까?

요리가 완성되면 간식 접시에 담아 18명의 이용자 모두 요리 활동이 끝나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요리 수행 후 바로 섭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의 요리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하면

“○○요”

하고 대답한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섭취 후에는 다 먹은 접시는 싱크대 개수대에 스스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다



요리활동 후 요리사진카드를 이용하여 사후 활동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리사진카드에는 요리사진, 요리명, 요리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날짜, 요리명, 요리그림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리사진이 있는 칸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고,

요리그림이 있는 칸에는 요리명을 기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리그림을 그려보고 아래 칸에는 맛있었는지 요리활동이 좋았는지 ○로 자신의 감정을 표시해 봅니다.

최고의 인기요리를 택하다

매월 마지막 주 요리사진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여 투표에 참여합니다.

월별 최고의 인기요리를 투표해 봄으로써 요리명을 한 번 더 인지해 보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요리사 사진을 투표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 얼굴 사진을 투표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요리 카드' 발전에 발전을 더하다



이용자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요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음식 사진카드 80종을 엄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요리사진카드를 정리할 수 있는 투명포켓을 따로 준비하여 요리카드를 자주 보고 접할 수 있도록 시각적 눈높이를 고려하였으며, 정리도 쉽게 될 수 있도록 벽면 제시용 카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1차 요리카드를 만들 때 요리사진카드 따로 요리이름 카드 따로 만들어 어떤 요리인지 맞추어보려 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어떤 요리 인지 이름을 잘 알지 못해 계속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모른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요리사진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에 요리카드 수정보안이 필요하였으며, 2차 요리 사진 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2차 요리사진카드 제작 시 사진과 요리명을 함께 넣고 번호를 지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3차 요리사진카드 수정에서는 요리를 만든 날짜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직접 요리활동 한 날짜를 보고 적을 수 있도록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사후 활동지 작성 시 날짜를 보고 적을 수 있도록 하였더니 요리 이름과 사후 활동지 작성 시 좀 더 쉽게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차 수정을 통해 지금 사용하는 요리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1차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사진카드는 이용자들의 사용 어려움으로 방치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요리그림을 찾기 게임을 활용 할 수 있는 교구로 변신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리수업을 진행했던 요리사진카드는 카드 중에서도 인기 있는 카드입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용자에게 의사표현 기회를 제공하다

그 달에 만들었던 요리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요리를 투표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기요리 투표 판을 자체 제작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요리사 그림을 사용하여 투표하였으나 누가 어떤 요리를 더 좋아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자기 사진을 투표용지로 활용하고 까슬이를 붙여 판에 바로 스스로 붙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인지능력에 맞추어 사진을 이용한 재료 찾기를 하였으며, 지역 슈퍼마켓을 이용하여 자신이 구매하기 위한 재료 사진을 확인하고 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경제활동을 익힘으로써 지역 사회통합과 자립에 대한 준비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다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사후 활동지의 경우 처음 요리명과 요리사의 이름을 적는 란에 무엇을 적을지 계속 물어보고 적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용자들이 많아 요리명에는 요리 그림을 추가하였으며, 요리사명에는 요리사 그림을 추가하여 요리그림을 보고 요리카드에 적혀 있는 요리명의 글자를 보고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였으나 다음에는 작은 설명에도 쉽게 수정하는 모습과 스스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리사명도 요리사 그림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적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 여가프로그램 요리활동 사후 활동지 | | | |
|------------------------|-------|---|--------|
| 오늘은 2018년 | 월 | 일 | 요일입니다. |
| 오늘의 요리사 | | : | |
| 오늘의 요리명 | | : | |
| | | | |
| 오늘의 요리들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 | | |
| | 맛있어요! | | 맛없어요! |
| | 좋아요! | | 싫어요! |
| 요리 후 느낀 점에 동그마에 적주세요! | | | |
| 영도구통합사회복지관-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 | | | |



에피소드

다양한 요리카드가 생기면서 요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어제 먹어본 음식을 이야기 하거나 음식카드에 먹어본 음식이 있으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리카드가 생기면서 요리하는 날이면 재료에 대해

“이게 뭐예요? 오늘은 뭐 만들어요?”

하며 질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요리! 요리!”

반복 말하며 시작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인지수준에 따라 음식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 하거나 그림만 보고 재료 중 한 가지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토스트를 식빵이라고 하고 빵 그림을 보며 반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리카드로 요리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해본 결과 요리수업을 진행한 카드는 잘 맞추었으나 새로운 요리카드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음식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직접 요리를 해 보는 경험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의 소소한 변화가 큰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ing 해줍니다.”

06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표현훈련 프로그램
“자립으로 가는 길”

상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신의 삶

의사표현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사회적응능력기술 향상

고민의 흔적

자립생활에 있어 자기결정은 이용자의 기본 권리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권리는 성인기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상생활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성인기에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하여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3명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이루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의 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았습니다.

**“ 자기 주도적 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그 욕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그 과정에 대해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가다

ft. 선택하기

이용자에게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하는 여가활동(마트, 노래방, 식당, 카페 이용, 산책, 박물관 및 영화관 관람 등)으로 많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체 제작 학습지를 통해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이용자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간식 사진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먹고 싶은 간식을 선택하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활동내용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자체제작 학습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함.(여가활동, 간식)

실시횟수 월 1회

대상인원 이용자 11명

자원활용 빔 프로젝트, 자체제작 학습지



ft. 수행하기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한 이용자는 냉장고로 바로 달려가거나 타인이 마시는 물을 뺀 행동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물이 먹고 싶을 경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해 표현을 학습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 마시고 싶어요. 물 먹고 싶어요.” 라고 언어적 표현 후 물을 마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자는 동영상 및 사진을 활용하여 동작으로 ‘O’, ‘X’를 통해 결정합니다.

**# 길을 지나가다 부딪쳤을 때 상황을 재연하여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활동내용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중 센터 내 필요한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말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음.

실시횟수 월 1회

대상인원 이용자 11명

자원활용 빔 프로젝트, 자체제작 학습지



ft. 감정표현

인형의 눈, 코, 입을 통해 변화하는 다양한 감정표현에 대해 영상물을 활용합니다.

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 표정 및 이용자의 표정 사진을 통해 감정 상태를 입 꼬리 모양 변화로 입술 방향을 보여주며 진행한 결과 표정에 따라 입술이 '위로, 아래로' 변화하는 것에 표현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정표현 노래를 부르며 배워보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표정을 보기도 하고 타 이용자에게 표정을 표현해보고 맞춰보며 느낌을

“즐거워요, 좋아요, 슬퍼요, 화가 나요 ...”

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용자 사진을 통해 “기쁘다” 라는 감정을 배워보고 난 후 앞으로 나와 타 이용자에게 표정을 알려주며 재학습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활동내용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시연 및 동영상물 통하여 습득하고 표현함.

실시횟수 월 1회

대상인원 이용자 11명

자원활용 빔 프로젝트(상황별 예절)

ft. 자기 인식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이, 전화번호 등을 개별적으로 작성해봅니다.

인적사항 작성 훈련을 통해 주소 및 어머니의 성함을 말할 수 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자체 제작 학습지를 통해 인적사항훈련을 실시하여 이용자 11명 중 5명이 이름, 나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스스로 작성하였습니다.

쓰기가 어려운 이용자는 글자에 밑그림을 넣어 외곽선을 따라 쓰고 읽으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 이용자에게 발표를 해보았으며 대부분의 이용자 다수는 이름을 포함한 간단한 자기소개가 가능하였습니다.

활동내용 자기결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써 자기소개를 통하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실시횟수 월 1회

대상인원 이용자 11명

자원활용 복지카드

더 나아가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프로그램 중 여가활동으로 외부장소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경우,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제공한 정보의 제한성과 정보가 이용자가 원하는 욕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혼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현이 가능한 다수의 의견 및 표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이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작으로 ○, × 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자체 제작한 학습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자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피소드

의사표현 훈련 프로그램 진행 시 이용자가 원하는 치킨 음식 사진을 보고

“꼬끼오,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하며 그림에 뽀뽀를 하는 행동이 보였습니다.


과자 이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광고 음악을 부르며 자신의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용자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별 특성에 맞게 질문을 하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화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는
도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가지며 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전화, 051)505-9512~3 팩스, 051)868-3518
홈페이지, www.bsgh.or.kr